

이렇게 들었다

남녀평등

“불성 아는 것 가장 존귀”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여성부가 정부 정책의 남녀평등적 관점을 평가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해 2-3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범 적용하는 한편, 7월 초 ‘여성 주간’에 즈음해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제정, 선포하기로 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18일 오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올 정기국회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망을 피해가는 ‘남녀 간접차별’의 처벌 근거를 도입하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도 강제 성매매 처벌과 윤락여성 자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이제 여성의 시대가 왔다. 정확히 말하면 남녀평등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격려사처럼, 한국의 여성인권도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권(女權)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진출도와 사회적 권한을 따지는 ‘여성 지위 지수(GEM)’에서도 세계 78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세속에서의 현상일 뿐 불법에는 원래 차별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다.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살차니경사 소설경)

사회에서 아직 남녀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고, 더구나 승단에서조차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남녀는 물론 인간, 나아가 중생의 평등을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동국대 신성현 교수는 ‘울장에 나타난 남녀차별의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울장 가운데 남녀평등을 의식케 하는 사건들과 표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불교는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불교가 처음부터 모든 계급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교단에서 출신성분을 개의치 않았다는 점과 여성의 출가가 승인되고 초기 불전에서 깨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이 불교의 남녀평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다만 울장 일부의 불평등적 요소는 성차별이 보편화된 당시 사회질서 속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정부의 남녀차별금지법 개정 등 단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이 땅에서도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길 기원해 본다. 김재경 기자

뇌사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불자 세상보기

삶은 끝없는 고통으로 얽혀져 있다.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는 의학적으로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불교교리의 입장에서 더 다양하다. 초기불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생기(生氣)·열·의식이 육체를 떠난 상태를 죽음으로 규정한다.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오온으로 구성된 여섯가지의 감각기관,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며, 느끼는 여섯 능력의 정지상태’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부분은 ‘생명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생명능력은 생명이 다하지 않으려면 계속되어야 할 생물학적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정의

의 상태를 죽음으로 본다면 결국 불교의 죽음은 생물학적 정의와 같다는 결론에 닿는다. 따라서 뇌사는 결코 죽음으로 인정될 수 없다. 뇌는 인간의식의 저장고이지만 불교의 죽음은 결코 의식의 실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교적 죽음은 ‘신체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즐거움 스님으로서 어떤 인간존재에게서 생명을 빼앗거나 또한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자는 어느 사람이든지 불교의 계율을 어긴 것이며, 따라서 더이상 승가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울전’ 안락사 거부

고통 덜기위한 수단

관여한 스님 교단추방

놀랍게도 <울전>에는 안락사에 직접 관여한 스님들에 대한 일화가 실려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사형집행자에 대한 신속한 처형장면이다. 한 사형수가 빨리 죽어 줄 것을 스님에게 호소하였고, 스님은 사형집행인에게 그 당부를 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죄수는 일찍 참수를 당한 것이다. 스님의 중재는 분명히 죽게 돼 있는 그 죄수의 죽음을 조금 앞당겨 집행케 한 경우다. 또 죄수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배려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님은 교단추방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두번째 경우는 손과 발이 잘려나간 한 남자가 친척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애원하고 있었다. 그때 스님은 그와 가족들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에게 버터우유를 마시게 하여 그 남자를 죽였다. 이 경우는 매우 능동적인 안락사의 경우인데, 그 스님 또한 교단에서 추방되고 말았다.

위에서 말한 두 경우는 오늘날 안락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자율성, 그리고 고통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울전>은 단호하게 안락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자신의 고통, 그 친척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압박,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순



정병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불교생명공학자인 반·룬(Van Loon)이 제기한 의문은 여전히 불교적 판단을 어느 한쪽에만 머물게 할 수 없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비록 불교인들은 생명을 극히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치고, 운이 다한, 그리고 통통성이의 삶 그 자체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완강하게 보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되거나’ ‘상실되거나’ 그들의 창조주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영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의 소리

불축연등 왜색등 많아

요즘에 길은 가다 거리에 매달린 연등을 보면서 부처님 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거리에서 연등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년에 한 번뿐이니 불자로서 자긍심도 갖게 되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마음도 새롭게 하게 된다. 또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도 마음을 들뜨게 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리에 달린 연등이 전통등이 아니라 왜색등이 더 많고, 그나마 지저분해 보는 이들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곱고 아름다운 우리 등도 많은데 왜 굳이 왜색등을 고집하는지, 그리고 새 것이 아니라도 깨끗이 닦아서 걸면 훨씬 더 흰색이 누런색으로 보일 정도의 등을 그대로 달아 오히려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느낌마저 준다. 더러는 짙은색을 달아 놓아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또 어떤 곳에서는 플래카드를 걸면서 교통 표지판을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곳도 있다. 불교신도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모습을 일반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불교인의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일반인들이 동참은 하게 하지 못할망정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모두가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것은 서둘러 고쳐야 한다.

<장용하·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사찰 장애인시설 부족

교계 신문을 통해 여러 불교단체들이 장애인들의 낯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여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불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교도 얼마 전까지 장애를 업이라고 여기고는 자포자기로 빠지는 사그락 때문이 이 분야 복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들을 보지 못했다. 전국 의 웅만대 큰 사찰을 모두 다녀 보았지만 화장실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시설을 갖춘 곳도 거의 볼 수 없다. 얼마전 어떤 학교에서는 장애인 입학할 한 명을 위해 1층을 쓰던 고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위층으로 옮기고 그 학생에게 1층 교실을 배정했는가 하면 계단을 부수고 경사로까지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사람의 아픔이라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규모가 작은 사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사찰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재신·충북 청주시 대성동>

복 빌지말고 공부 열심

아직도 집에 다니면서 막연하게 복을 빌는 불자들이 많다. 부처님은 하늘을 날거나 땅을 주름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불교 역시 사람들이 빈다고 해서 복을 주거나 터무니없는 황제나 행복을 안겨주는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막연히 복을 빌는 데만 열중한다. 종교를, 특히 불교를 신앙하는 불자라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된다.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불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등을 단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복을 빌다고 해서 타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복을 빌느냐이다.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복이다.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빌기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교는 본래의 자기를 찾으라고 가르친다. 경전에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넓은 시각에서 총괄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경전을 스승 삼아 공부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다.

기도를 기도 자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돌아보며 신심을 쌓는다면 빌지 않아도 복을 저절로 얻을 것이다. <유은희·충남 당진군 면천면>

기고

자식 잘 키우려면 떠 먹여주지 말고 홀로살 수 있도록



이우상 소설가

미운 자식 밥으로 키우고 귀한 자식 대로 키운다는 복은 속담을 다시 생각해 본다. 지금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밥으로만 키운 자식들이 넘친다. 비단아와 버트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어른들은 자식 문제에 관한 한 장님이 된다. 열성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극진하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에 대한 잦아 갈날처럼 시퍼렇게 구분된다. 내 자식의 무례는 재물이고 남의 자식의 몰상식한 행동에는 치를 떤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본당의 몇몇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1학년 동생들의 점심 배식을 돕는 급식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가 사흘만에 혼 풀이 나서 시행을 포기했다. ‘학년 갈 시간도 없는데 우리 애한테 왜 그런 일을 시키냐. 우리 애가 식사 담당이나 하려고 학교에 다니는 줄 아느냐. 우리 애가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는다’ 등의 극진한 사랑의 황의가 빚발쳤기 때문이다.

실시 방법의 세련되지 못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입맛이 쓰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몸은 이미 성인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이 많다. 막내 동생들 되는 아이들을 도와주기에는 여력이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귀한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싫다. 잠시도 쉬지 않고 다들고 매만지고 쪽쪽 빨아도 늘 아쉬운 것이 내 자식인데 말이다.

학교는 사회화의 도량이다. 우리 가운데 어울려 능글하게 홀로 서기를 익히는 곳이 학교이다. 경쟁과 양보를 동시에 익히는 곳이다. 보람과 좌절을 함께 맛보며 커 가는 광장이다. 귀한 내 자식이 무리 속에서 의연하게 홀로 서기를 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부모된 자의 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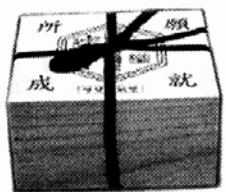
떠 먹여 주고 닦아주고 빨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짐승인 호랑이도 새끼들을 버랑 아래로 밀어 뜨려 그중 거여울라오느 놀만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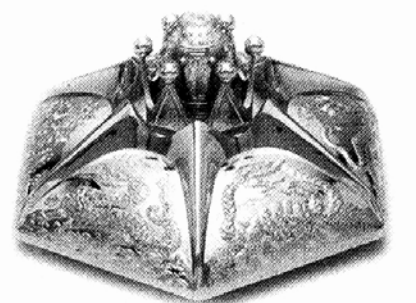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氣란?현실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기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기(氣)란 : 현실이다



- 항상 가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 속 깊숙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할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속사정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꼭 가정에 두십시오.

※ 주지스님 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오.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 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고 범종을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 “보이지 않는디어법칙을 어기지마라.” ◆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고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기방이 확달라 졌습니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시집, 입자, 철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기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